

국민의 새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 포 일	2018. 12. 31.(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 당 자	• 과장 명노현, 사무관 이형민, 주무관 정성근 • ☎ (044)200-5310, 5315, 5317 • 해양생태팀장 황인서, 과장 정회인 • ☎ (02)3498-7151, 7158
	해양환경공단		
보 도 일 시		2019년 1월 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바다의 강태공, ‘쇠가마우지’를 지켜주세요

- 해수부, 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쇠가마우지’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뛰어난 먹이사냥 실력을 지녀 바다의 강태공이라 불리는 ‘쇠가마우지’를 선정하였다.

쇠가마우지라는 이름은 ‘작다’는 뜻의 순우리말 ‘쇠’와 ‘까맣다’의 ‘가마’, 오리의 옛말 ‘올히’에서 오다-오자-우지로 변한 ‘우지’가 합쳐진 말로 작은 검은 오리라는 뜻을 가진다. 쇠가마우지는 몸길이가 약 64~98cm, 몸무게가 1.5~2.5kg으로 이름처럼 가마우지와 중에 가장 몸집이 작으며, 몸 전체가 녹색 광택을 띠는 검은색 깃털로 뒤덮여 있다.

쇠가마우지는 주로 암초 위나 해안 절벽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절벽의 오목한 곳에 마른풀이나 해초를 이용해 둥지를 만들어 한 번에 3~4개의 알을 낳는다.

쇠가마우지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물고기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 등 먹이를 사냥하며, 그 실력이 뛰어나 ‘바다의 강태공’이라고 불린다. 물가에 사는 다른 새들과 달리 기름샘이 발달하지 않아 깃털이 물에 잘 젖고, 이로 인해 약 30미터까지 잠수하여 1분가량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잠수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부리 끝에 낚시 바늘 같은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어 한 번 잡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다.

쇠가마우지는 뛰어난 사냥 실력과 더불어 통째로 먹이를 삼키는 특성을 지녔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중국 구이린(桂林)과 일본 이누야마(犬山) 등지에서는 가마우지의 목을 끈으로 조여 먹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고 가마우지가 잡은 물고기를 가로채는 ‘가마우지 낚시’가 성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는 서해안의 소청도, 백령도 등의 쇠가마우지 텃새무리와 동해안 및 남해안 일부지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 무리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한국, 일본, 쿠릴열도, 캄차카, 사할린, 북아메리카의 태평양 연안 등에 넓게 분포한다.

쇠가마우지는 엘니뇨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관심필요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큰까마귀 등의 포식자도 쇠가마우지의 어린 알들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해양수산부는 쇠가마우지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쇠가마우지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보호해양생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지켜주세요!!

이달의 보호해양생물

바다의 강태공

쇠가마우지는 일반적인 가마우지와 달리 얼굴에 흰색 부분이 없다. 몸 전체는 녹색 광택을 띠는 검은색 깃털로 뒤덮여 있으며, 눈 가장자리 주변으로 붉은색 반점이 수려하다. 깃털은 잠수에 편리하도록 물에 잘 젖으며, 발가락의 물갈퀴를 이용해 헤엄친다. 수심 약 30m까지 잠수하여 1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쇠가마우지는 수중 사냥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 낚시바늘 같은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솟은 뾰족한 부리는 한번 잡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쇠가마우지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쇠가마우지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없이 포획, 보관,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 일부 도서지역의 텃새무리와 동해안 및 일부 남해안에서 월동하는 겨울 철새무리가 있으며, 일본, 알래스카, 사할린 등지에도 분포한다. 어류와 갑각류를 섭취하며 바닷가의 암벽과 암초지대에 동지를 틀고 서식한다. 몸길이 64~98cm, 몸무게 1.5~2.5kg에 달하며, 겨울을 날 때에는 해마다 같은 장소로 날아온다.

*Phalacrocorax pelagicus*

쇠가마우지

우리가 보호해야 할

